



손예진·고현정·김남주(왼쪽부터)

# 톱 여배우들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 손예진·고현정·김남주·최지우 등 연기력 무장 톱스타 시청률 대결 펼쳐

손예진·고현정·김남주·최지우 톱 여배우들이 안방극장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 동안 TV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세월은 흘렀지만 톱배우는 톱이다. 단독 주연 자리를 꿰차고 시청자를 찾는다.

스타배우를 잡은 것은 웰메이드 작품으로 유명한 각 방송사 PD들로 트렌디한 감각과 파워풀한 존재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배우들이 속속 TV 드라마로 복귀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여성 배우들의 활동 빈도가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영화계가 남성 배우 위주 작품으로 편중되면서 여배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진법 문화평론가는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건 물론 우연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나마 연기할 수 있는 배역이 있는 드라마로 여배우들의 활동이 제약되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찌됐든 톱여배우들을 TV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내년 안방극장은 영화같은 그림과 실감나는 연기력으로 무장한 톱스타들의 시청률 대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손예진×안판석PD...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이 출연 물망에 올라있는 작품은 JTBC 새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다. 내년 초 방송 예정인 이 작품이 주목받는 건 안판석 PD 연출작이기 때문이다.

안 PD는 '밀회'(2014) '하얀거탑'(2007) '아름다운 여자'(2000) 등 걸작 드라마를 내놓은 드라마 PD다. 각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인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거리다.

손예진(35)은 명실상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배우다. 지난 16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그가 쌓은 필모그래피는 어떤 배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그가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 만으로도 화제성은 보장돼 있다.

드라마 내용과 손예진이 맡을 역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손예진 소속사는 이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작품"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영화 '협상' 촬영 중이다.

◇고현정 위한 판 깔았다... SBS 새 **드라마 닥터**

고현정(46)은 내년 초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닥터'로 복귀한다. 지난해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한 그가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건 MBC 여왕의 교실(2013)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작품은 상류층 자제들이 용의자가 된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가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고현정은 극중 TV법정소 '닥터'의 진행자이자, 밀바다에서 성장해 변호사가 된 '최지혜'를 연기한다. 이번 작품에는 정은채·신성록 등이

함께했고, 이진욱도 출연 물망에 올라 있다.

◇김남주 '뉴스 앵커로... JTBC **미스티**

김남주(46)는 뉴스 앵커로 돌아온다. 그의 마지막 드라마는 '남몰래 굴러온 당신'(2012)이었다. 김남주가 선택한 JTBC 새 드라마 '미스티'는 내년 초 방송 예정인 작품이다.

김남주와 그의 새 드라마가 주목받는 건 단순히 그의 복귀를 향한 반가움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작품은 주로 가족극에서 활약해 온 김남주가 새롭게 도전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대한민국 최고 앵커와 그의 변호사가 된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남주와 함께 지진희·전혜진·진기주·고준·구자성 등이 출연한다.

◇최지우 '노회경 세계로...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최지우(42)는 노회경 작가와 의기투합했다. tvN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 작가가 21년 전 내렸던 MBC 4부작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말기 암을 앓는 중년 부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2011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노 작가는 '괜찮아 사랑이야'(2014)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그들이 사는 세상'(2008) '굿바이 솔로'(2006) '고독'(2002) 등 강력한 마니아층을 확보한 스타 작가다.

그의 작품들은 재미 뿐만 아니라 작품성 면에서도 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내는 걸로 유명한 그의 작품에서 최지우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 텍사스 언론 "추신수, 스탠튼 영입 위해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도"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안키를로 스탠튼(28·마이애미 말린스) 영입을 위해 추신수(35)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왔다.

텍사스 지역 매체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은 20일(한국시간) "텍사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은 가설을 제기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텍사스는 다음 시즌 구상에 한창이다.

오른손 강타자 영입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텍사스 구단은 올해 50개의 홈런을 몰아친 스탠튼 영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스탠튼 영입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스탠튼은 마이애미와 앞으로 10년간 2억95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아있다. 그는 2015시즌을 앞두고 마이애미와 계약기간 13년, 총액 3억25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최근 데릭 지터를 포함한 새로운 경영진을 앞세운 마이애미는 이번 오프시즌에 선수단 전체 연봉 규모를 줄

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스탠튼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고 텍사스 구단이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존 대니얼스 텍사스 단장은 "우리는 누구와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전략 실행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텍사스 구단이 스탠튼을 영입하고자 한다면 추신수를 트레이드 해 전체 연봉 규모를 줄이려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연봉 균형이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계약기간 7년, 1억8000만 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추신수는 앞으로 3년 계약이 남아있다. 내년엔 2000만 달러,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 매체는 "텍사스 구단이 노마 마지라를 추신수와 함께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도 해당 트레이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은 "텍사스는 오른손 강타자보다 마운드를 보강



하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한다. 선발 로테이션의 빈 자리 뿐 아니라 볼펜도 보강해야 한다"며 "꽤 복잡한 거래다. 마이애미가 내년 시즌을 마치기 전까지 트레이드에 응하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향한 스타들의 응원 열기 '후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연예,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유명 스타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응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스타들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여제 김연아를 비롯해 한류스타 이민호, 박빙의 태양 등 각 분야 인기 스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이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18 평창을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에 참여하는 등 각종 행사에서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해 힘쓰고 있다.

또한 김연아는 배우 박보검과 함께



올림픽파트너인 코카콜라의 평창 동계올림픽 캠페인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시작되는 생화봉송을

/뉴스

## '신화' 김동완, 내달 2년 만에 솔로가수 컴백

한류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2년 만에 솔로 컴백한다.

20일 소속사 CI ENT에 따르면 김동완은 오는 11월 새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김동완은 지난 2015년 11월 두 번째 미니 앨범 'W' 발매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MBC TV '나 혼자 산다' 등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 '시라노' 등에 나왔다.

솔로 앨범을 통해 오랜만에 음악적 역량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방송 예정인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소풍' 가는 날에도 출연한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